

생명결사 말로만 ‘요란’

4대강 반대 기도회 저조한 참여 예상... 3월 1일 기도회는 불교만 불참



2010년 조계사에서 열린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제'에 참가한 1000명의 스님들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4대강 개발 저지 4대 종단연대회의'가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공동 기도회를 준비 중이지만 불교계의 참여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사업 반대여론이 실종됐다

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대회의는 4월 8일 서울 광장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히 각 종단들은 이번 기도회에서는 성직자들의 대규모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종단별 성직

하는데 타 종단에 비해 참석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이 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연대회의는 4대강 사업 4개 구간에서 종단별로 3월 1일 기도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기도회에 불교계는 내부 상황과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불참했다.

조계종은 2월 28일 연대회의로부터 3월 1일 기도회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조계종은 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기도회 참석을 위해 연대회의에 참석해 온 불교환경연대가 최근 내부적으로 흥여를 잃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끝내 불참했다. 결국 3월 1일 기도회는 불교계가 담당하기로 한 낙동강 낙담보를 제외한 금강(개신교), 두물머리(천주교), 영산강(원불교)에서만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불교계 내부에서도 지난해 말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식적으로 밝혔던 조계종의 의지가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연대회의측은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앞으로의 연대가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양재성 생명강 지키기 기독교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다른 종교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렵고, 불교계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웠다. 하루 빨리 내부 상황이 정리돼서 불교계 역할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불교 강해운 교무는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과 능력은 모두가 인정한다. 4대강 반대를 위한 행동에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불교환경연대는 총무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 사찰에 4월 8일 기도회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내부적인 동력이 약해진 불교환경연대가 이번 기도회를 독자적으로 성사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총무원 사회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반대 대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4월 8일 기도회에 많은 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구분사에 공문을 보내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뇌 반쪽, 토안의 날개가 돼 주세요

통장에 달랑 5만4000원

베트남 이주노동자 토안(27)의 아버지 마이반데(52)는 움푹 들어간 아들의 머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몸부림치며 통곡이라도 하고 싶지만 눈물도 안 나온다.

토안은 경북 칠곡군 왜관 직물공장의 성실한 일꾼이었다. 2007년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그는 한국에 올 때 빚진 2000만원과 베트남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 각하면 이를 악물고 일해야 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번 돈으로 베트남에 돌아가 하고 싶은 일도 많았다.

2010년 7월 7일, 토안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하던 차량에 충돌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운전하던 토안은 두개골과 두개저(頭蓋底) 밑 앞면 골절상으로 뇌의 절반가량을 제거해야 했다. 사고당시 엄청난 충격으로 기억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정신연령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떨어졌다.

토안 아버지는 토안의 첫 수술 후 8월 아들 간병을 위해 한국에 와 있다. 한국 의술을 믿어 보지만 "확답을 주기는 어렵다"는 의사 선



생활비를 대고 나니 통장에 잔고는 5만 4000원 뿐. 앞으로 1년 동안 병간호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토안도 아버지도 막막하기만 하다.

마하뽀다센터 대표 진오 스님과 박재수 센터장에게 병원에 명의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베트남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토안의 조부모와 어머니, 남동생이 있는 집에 지난 11월 화마까지 덮쳐 걱정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토안의 사연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마하뽀다센터 진오 스님이 토안을 돕기로 했다. 스님은 4월 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108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토안에게 희망을 전하기로 했다. 진오 스님은 마라톤 참가자 중 후원자 108명을 모아 1km마다 100원의 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결국 토안의 고통에 비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스님은 작은 나눔이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1차 수술 후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던 토안은 이주여성긴급전화 통역봉사자의 소개로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마하뽀다센터(대표 진오)에 머무르고 있다. 다행히 병원비는 보험처리하기로 했지만 병원비는 병원치료를 다 마치고 난 이후 토안의 지능지수, 장애등급, 노동능력실정 정도 등의 등급에 따라 보험비가 지급된다. 한국에서 토안은 돈을 벌면 빚을 갚기 급했고,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든

이상은 기자

이나는 기자의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강남 '사랑의 교회' 기막힌 신축 공사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공공도로를 막고 그 지하에 교회 예배당을 짓는 공사가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 부루나의 한 네티즌은 3월 24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강남 사랑의 교회 기막힌 신축공사' 기사를 소개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담임목사 오정현)는 서울 대법원 맞은편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구 옆 너른 터에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라는 새 예배당을 짓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예배당 신축공사로 인해 공사장 서쪽 길이 165m, 너비 8m짜리 공공도로가 사라졌다. 교회 쪽이 공사장 왼편에 있는 '잠나리길'을 차단하고 아예 공사장 터로 쓰고 있다"며 "잠나리길 아래에는 지하 예배당이 들어설 계획이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이 센터에는 대지 면적 6782㎡(2051평)에 건물 두 채가 들어선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공공도로의 지하를 종교시설이 이용하도록 허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공사는 서초구청의 건축 심의 등을 통

과해 지난해 6월 17일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랑의 교회에는 이해훈 한나라당 의원과 김덕룡 대통령 특보가 신자다. 교회건축위원회에는 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과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부루나 회원들은 공공용지가 특정종교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S씨는 "이 기사를 보고 황당했다. 일반적으로 대형공사를 하면 자기 땅에 한정해서 건물을 지어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다반사인줄 알고 있다. 잠실 불광사도 불광사 소유의 토지에 범당 재건축을 하는데 이웃한 아파트 주민들이 고작 40여 대 수용하는 작은 주차타워를 놓고 교통대란 운운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 불광사는 그 아파트 보다 수십년 먼저 자리 잡은 사찰이었는데 낱아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이다"고 말했다.

이어 S씨는 "사랑의 교회는 아예 공공토지를 교회 건물부지 안으로 수용해 버렸다. 요즘은 토지의 지하권도 인정하는 추세로 전철공사에서 지하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저 교회에 수용된 지하공간은 분명 공공의 소유인데 어떻게 임의로 교회부지에 편입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당하게 문제제기 되어야 할 대목 같다"고 주장했다.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가 성시화 운동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K씨는 "고위공무원과 정부 측근 등을 등에 업고 길 건너 대법원의 높이에 맞춰 지상 13층으로 설계했지만, 최근 14층으로 최고 높이를 교회를 우러러 보도록 변경했다. 입법부(국회-여의도순복음교회), 행정부(이명박 장로, 청와대 초청기도회), 사법부(대법원-사랑의 교회)를 장악을 한다는 내용을 펴밧기의 변형 형태로 시도하고 있다"며 "예전의 성시화 운동에 나왔던 3권 장악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는 예전 봉은사 팽밭기의 예즈37단체(지금은 사이트 폐쇄)의 본부 단체인 청년목회자연합 이사장이다. 공사를 통해 교회가 국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가 보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문화재관람료 반대 운동 격화

지역시민단체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돌입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신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정읍시에함운동본부 등 정읍지역 59개 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 내장산 찾ki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한욱 등)'는 4월 2일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내장산찾ki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시민과 탐방객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결의대회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둔다. 이들은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내장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내장산 측에 관람료 폐지 및 매표소 철거를 요청했지만 사찰이 외면해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문화재관람료 일괄 징수의 부당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서명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전남 구례 천은사도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광주지법 순천지청에 민사와 형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한편, 문화재관람료는 2007년 1월 정부에서 국립공원 개방정책에 따라 당시 문화재관람료와 통합 징수되던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며 그 당위성에도 여론의 반발을 받아왔다.

시민단체측은 국립공원 및 등산로에 자리한 사찰의 특성 상 일반 등산객이 문화재 관람과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징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불교 내부에서도 재정이 지나치게 관람료에 의존되고 사찰별 신도 관리나 적극적 포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노덕현 기자

근기를 없앤 활인참선

이 생애 깨달아 성불하는 참선

제 5차 참선대중화 선회

삼매체험 선 수련회 · 단기출가

활인선원 정진대중

하안거 · 동안거 재가자 모집

공부 힘을 얻어 결림없는 대자유인이 되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산다.

모든 장애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누린다.

물만 마시고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 퇴치 · 예방가능

면역성 노화억제 해독 아토피 피부미용 생리연장 금연 금주 쾌차

부담을 없앤 단식, 금강단식.

바로 끊고 바로 먹는 뒤탈 없는 참선 단식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청소년 대학생 일반

참선대중화선회 일정 (3일간) : 4월 8일(금) ~ 10일(일)

하안거 동안거 산철결제 일정	수련회 단기출가 일정	
하 안 거(음) 4월 15일 - 7월 15일(3개월)	3월 26일 ~ 3월 30일(5일간) ~ 4월 23일(30일간)	6월 10일 ~ 6월 14일(5일간) ~ 7월 9일(30일간)
가을산철(음) 8월 1일 - 9월 30일(2개월)	4월 8일 ~ 4월 12일(5일간) ~ 5월 7일(30일간)	7월 8일 ~ 7월 15일(8일간) ~ 7월 22일(5일간)
동 안 거(음) 10월 15일 - 1월 15일(3개월)	5월 13일 ~ 5월 17일(5일간) ~ 6월 11일(30일간)	7월 22일 ~ 8월 5일(8일간) ~ 8월 9일(5일간)
봄 산 철(음) 2월 1일 - 3월 30일(2개월)		8월 9일 ~ 8월 13일(5일간) ~ 9월 10일(30일간)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산성맞춤 활 인 선 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 ☎ 1644-5266 / 070-7519-9929

네이버 카페 ▼ 활인선원